



# 하나님의 은혜

조은아

신상우

나를 지으신 이가 - 하 나 님 나를 부르신 이가 - 하 나 님

나를 보내신 이도 - 하 나 - 님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

나의 달려갈 길 다 가 도록 - 나의 마 지 막 호 흡 - 다 하 도록 -

나로 그 십자가 - 품 게 하시 나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

한 량 없 는 은 혜 - 값 을 길 없 는 은 혜

내 삶 을 에워 싸 는 - 하 나 님 의 - 은 혜 -

나 주 저 함 없 이 - 그 땅 을 밟 음 도 -

나 를 불 드 시 는 - 하 나 님 의 은 혜 -

<https://blog.naver.com/zzseulzz>

## 새롭게 하소서: 예배자의 자세

삼하 (2 Sam) 6:1-11 Renew: The Attitude of a True Worshipper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웃사는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고 반대로 같은 법궤를 섬긴 오벧에돔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또한 법궤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지만 반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법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1. 법궤 앞에서의 다윗

#### 1) “뿔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뿔은 무리 삼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삼하 6:1)

① “뿔은” קָרְנָה : 가장 최고급의 인력을 선택했다

② “다시 모았다” חָזַר וַיִּקְרָא :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을 다시 모았다

➢ “뿔은 무리 삼만을 다시 모았다” 의미: 전쟁에서 최정예 군대를 동원했던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 2) 모든 악기들이 동원된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삼하 6:5)

①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동원했다는 것은 성경에 처음 있는 일이다

➢ 다윗의 왕권이 음악에 투자할 정도로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 3) 다윗의 힘은 점점 커 갔다 (삼하 5장)


- 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스라엘 남과 북이 통일했다
- ② 이웃나라에서 다윗과 잘 지내기 위해서 조건 없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 주었다
- ③ 강대국인 블레셋과 전쟁하여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 다윗에 의해서 중동지역의 전 세력이 완전히 재편되다

### 4) 다윗은 자신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 ① 그 기회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갈 때였다
  - 다윗이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한곳에 자기 힘을 보여 주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다

### 5) 다윗의 과시욕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약점

- ①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을 허용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삼하 6:2-3)

- ② 율법: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뭘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뭘 것이며” (민 4:15)

- ③ 다윗의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의 원리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다

- i.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삼하 6:3)
- ii.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삼하 6:4)

- 다윗은 자기의 큰 힘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다가 법궤를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 본질을 놓쳐버렸다


## 2. 법궤 앞에서 웃사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라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삼하 6:6-7)

### 1)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동안 있었다

- ①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평생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다

### 2)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웃사를 죽였을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뭘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뭘 것이며” (민 4:15)

“웃사는 언약궤가 수레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웃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그의 평소의 ‘습관’이다” (유진 피터슨)

- 웃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모습이다. 타작마당에 흔들리는 법궤를 보고 웃사가 법궤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것을 만지게 된 것이다